



천연염색으로 물들이다

무등갤러리 '색울림 합창전' 내달 6일까지



윤승자 작 '쪽빛의 여우'

'자연의 색을 담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소속 체험 교육강사들이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색울림 합창전-천연염색으로 물들이다'전을 연다.

전시에는 김민숙·김월숙·성유라·안후정·윤승자·홍성숙씨 등 천연염색 작가들이 참여, 자연의 색을 기본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오배자·녹차·쪽 등으로 염색한 모녀의 나들이를 위한 커플한복, 쪽 염료를 활용해 한복의 산수화를 표현한 작품, 양파껍질·감·떡·쪽으로 색과 문양을 내 제 작한 카페트 등 작품이 인상적이다. 또 대리골드·소목·락·감물을 이용해 자연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담은 남방염 가리개 등 작가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도 눈에 띈다.

오는 5월7~30일에는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한편 참여 작가들은 지난해 10월 대안에서 열린 ISEND(세계천연염색심포지움), 대안·한국 천연염색국제교류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236-25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땀 한땀 ... 인형속에 내 얼굴을 담다



손뜨개 인형

손뜨개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지쳐있는 심신을 어루만져 주는 친구이자 삭막한 집안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인테리어 효과도 독특히 해낸다. 겨울에 만 뜨는 취미생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계절 내내 함께 할 수 있다.

"뜨개" 하면 주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며 자녀들의 옷을 뜨던 뜨개방이 떠오른다. 20~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뜨개방이 많았었다. 당시에는 공장 옷이 실감보다 비쌌기 때문에 손뜨개로 옷을 만들어 아이에게 입히기도 하고 부업으로 뜨개질을 하며 가계살림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던 편물 산업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해지고 섬세해지면서 공예로서의 뜨개 개념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털실로 만든 손뜨개 인형이다.

트, 대비 별킨 등 유명 작가들의 인형을 만든다. 그들의 작품 도안을 구입해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자신만의 인형을 완성시키거나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일러스트 작업으로 도안을 만들기도 한다.

기다라고 뾰족한 코에 능청스런 표정의 다람쥐여우 시릴, 사람 흉내를 낸 귀요미 캣거루 키라, 모든 사람을 다 가져가 줄 것만 같은 천진난만 격정인형들까지 알록달록 귀여운 인형을 보고 있으니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 신기하다.

"같은 도안이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힘의 강약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어요. 인형속 얼굴이 만드는 사람의 얼굴을 닮는다고 해요." 그녀는 SNS를 이용해 자신이 만든 인형을 사진 찍어 올린다. 인형을 보고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싶다고 재료를 문의해오기도 한다. 초보자들에게는 동영상 찍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뜨개 인형에 필요한 재료는 코바늘이나 대바늘, 공예용 시침핀, 쪽가위, 검자, 방울 솜, 돗바늘이 기본 도구다. 검자는 인형의 팔다리나 몸통 안에 솜을 채워 넣을 때 사용하는 가위다. 좁고 긴 부위에 솜을 채울 때 유용하다. 솜은 인형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머리카락 등에 채워 넣는데, 구름솜은 뭉치기 쉬우므로 방울솜을 이용한다.

실은 일반적으로 울사를 사용한다. 울사는 실이 부드럽고 색이 다양해서 인형을 만들때 좋다. 다만 보풀이 많기 때문에 혼방 울사를 사용한다. 아이용품에는 면사를 쓴다. 컬러 선택은 100% 뜨는 사람 마음이다.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용일 경우 원색이나 파스텔 톤을 선택하면 된다. 인테리어 소품은 색의 대비를 활용하거나 기존 작가들의 작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뜨개 인형은 뜨개를 배워본 적이 없는 초보일지라도 배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까운 공방이나 문화센터에서 배우면서 시작할 수 있고 기초 과정에 포함된 DIY세트를 구입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단계를 밟아갈 수도 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집안에 온기 주고 인테리어 효과도 '특특'

같은 도안이라도 만드는 사람따라 모양 제각각

실은 대부분 혼방 울사 ... 아이용품에는 면사

손뜨개 인형을 배우며 자신감을 찾게 됐다는 백미령(34)씨는 4년전 뜨개 인형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1년여 남짓 외부생활을 하지 못한 그녀에게 손뜨개 인형은 지루한 일상생활을 버티게 해준 친구이자 새로운 삶을 찾게 해 준 은인라고 같은 존재였다.

"손뜨개 인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스스로 무언가 이뤘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는 작업입니다. 완성된 인형을 보며 흐뭇한 미소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떠나는 감성여행 같은 거죠."

백씨의 집 한켠에는 작은 공방이 마련돼 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뜨개작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을 그녀는 '손뜨개인형연구소'라 이름지었다. 이곳에서 손뜨개인형을 연구하며, 만든 인형을 판매하고, 자신이 그렸던 것처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백씨는 주로 손뜨개 인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도나 윌슨, 진 그린호우, 알란 다



손뜨개인형연구소 백미령씨가 자신의 공방에서 인형을 만들고 있다.

봄날 여행길서 만난 삶·이야기

소소미술관, 6월 14일까지 12명 작가 초대전

봄날 우리는 가족, 친구들과의 여행길에서 어떤 것들을 만났을까.

소소미술관은 오는 6월14일까지 '고마운 어느 봄날 스케치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행에서 만난 자연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시에는 김남일·김해성·김효삼·류재용·문정호·박영현·오광섭·임병남·장세관·정경래·조현수·조문현씨 등 모두 12명의 작가들이 초대됐다.

작가들은 봄날 여행지의 단순한 풍경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삶과 이야기, 자연 등을 함께 작품에 담았다.

지친 몸을 요양하기 위해 머물렀던 제주도의 풍경, 익숙한 고향 마을의 골목 어귀와 달 항아리가 있는 봄밤의 풍경, 해미웨이 작품의 배경이 된 스페인 론다 협곡, 청년 시기 괴테가 심적 평온을 얻었던 베네치아의 해안, 좁은 골목길의 모습들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소소미술관에서는 전남문화재단 문화거점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일근, 신철호 작가가 미술관에 입주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1-375-1995.



정경래 작 '바다로 가는 길 II'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 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